

國語의 文法的 特徵에 대하여

任 洪 彬

(서울대 교수, 國語學)

「국어생활」에서는 독자들의 국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호부터 국어의 중요한 文法的 現象을 주제별로 나누어 연재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1. 文法的 二 分野

문법에 대한 연구는 形態論과 統辭論의 두 분야로 나뉜다. 형태론은, 단어(word)라고 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단어보다 작은 구성을 다루는 문법 연구의 부문이며, 통사론은 단어와 단어가 이루는 구성, 즉 단어보다 큰 구성을 다루는 문법 연구의 부문이다. 형태론은 형태론의 기본 단위인 形態素를 정립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여, 형태소와 형태소가 어떻게 결합하여 活用이나 曲用을 하며, 또 형태소들이 어떤 절차에 의하여 合成語나 派生語를 이루는가를 다루게 되고, 통사론은 단어와 단어가 어떻게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가, 문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문장이란 것을 규칙에 의하여 생성시킨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규칙이 필요하며 그 규칙들의 성격에는 어떠한 제약이 따르게 되는가, 그러한 규칙들과 다른 규칙들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문장과 문장은 최소한 동의인가 어떤가를 따지게 되는 문법 연구의 부문이다.

따라서, 국어의 문법적인 특징이란 것도 두 가지 부문에 걸쳐게 된다. 하나는 국어의 형태론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

어의 통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국어의 형태론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알타이 語 공통 특질론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며, 국어의 통사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언어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나 언어 유형론의 현대적인 접근과 더불어 변형 생성 문법 이후 관심의 표적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서 국어의 문법적인 특징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되 먼저 ‘단어’의 개념에 대하여 그 불투명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형식논리상에 있어 ‘단어’의 개념은 문법의 두 분야인 형태론과 통사론의 경계 지음의 한 징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最小 自立 形式’이라는 것이다. 어떤 구성을 그것을 이루는 직접적인 성분으로 분석하여, 혼자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단어가 된다고 하는 뜻이다. 이러한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국어에서의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러한 단위에는 이를 수 없다. 조사가 자립 형식이 되지 못하므로 ‘체언+조사’가 하나의 단어가 되게 되며, 역지로 강변한다면 모르거니와 ‘관형사+체언’과 같은 구성도 ‘단어’가 되게 된다. ‘새’ 등과 같은 관형사가 혼자 쓰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관형사+체언’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형사는 관형사대로, 체언은 또 체언대로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를 형성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직접 성분 분석이나 그에 의한 단어의 정의가 매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잠재적인 휴지에 의하여 단어의 경계를 찾아보려고 해도 역시 문제는 허다하다. 잠재적인 휴지란 것이 발화적인 특성이며, 또 개인차를 상당한 정도 수용하는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실제에 있어 가령 ‘새 책’과 같은 ‘관형사+체언’의 구성에서 ‘새’ 뒤에 완전한 끊어짐의 억양이 온다고 믿을 수는 없다. 억양이 잠시 하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완전한 하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소 과장을 한다면, 그만큼 정도의 쉬운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도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장 정확한 의미에 있어 단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언어사회의 관용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그 개념은 정서법적인 개념이며, 그것이 인위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새삼 지적할 바가 못 된다. 따라서, 형태론과 통사론의 구분이란 것도 이러한 인위적인 규정 속에서 나누어지는 편의적인 분류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며, 그 엄격한 개념상의 차이가 선명히 밝혀지기 어려운 문법의 연구 부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통사적 특성에 대한 논의나 형태론적인 특성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분류상의 약점에 대한 양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형사 문제와 더불어 여기서 부수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국어에서 ‘관형사+체언+조사’의 구성은 절대로 ‘관형사’와 나머지 부분을 먼저 나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새 책에’와 같은 구성을 먼저 ‘새’와 ‘책에’로 나눈다면, 관형사가 ‘책에’와 같은 부사어를 수식한다고 하는 기묘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기 짝문이다.

2. 國語의 形態論的인 特徵

알타이 어의 공통 특질론 가운데서 국어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대목에는 대체로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어에는 인도-유럽어적인 성(性, gender)의 구별이 없다든가, 관계 대명사가 없다든가, 인도-유럽어적인 수의 개념이 없다든가, 형용사에는 인도-유럽어적인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다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질론 가운데 몇 개 안되는 적극적인 성격 구명은 국어가 膠着語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며, 국어에 있어 修飾語는 被修飾語 앞에 온다는 것이다. 전자는 Steinthal (1860)의 형태론적인 특징에 의한 세계 언어의 삼분법을 국어에 적용한 것이며, 후자는 통사적인 특징인 것으로 여겨진다. 국어가 교착어라는 것은 흔히 국어에는 語尾와 助詞가 발달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가령 ‘語尾’가 발달한 것으로

말하면, 인도-유럽어라고 하여 이에서 제외될 까닭이 없다. 희랍어에 있어 동사활용표는 그것을 의우는 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랍어를 교착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국어의 형태론적인 특징은, 혹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활용상의 특징은 희랍어적인 동사의 활용이 가지는 특징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해야 한다. 국어를 ‘교착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미’나 ‘조사’가 발달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교착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Bloomfield (1933: 208)의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구축 형식이 단순히 서로의 뒤에 오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어간’과 ‘어미’를 쉽게 분리할 수 있다든지 체언과 조사를 쉽게 분리할 수 있다든지 하는 개념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국어의 특징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영어에 있어 ‘be’ 동사의 활용형인 ‘are’를 보기로 하자. 이 형식은 적어도 몇 가지 특징들의 묶음을 동시적으로 의미하게 된다. 하나는 주어가 2인칭 단수이고 시체가 현재이며 적어도 서법이 직설법이라는 특징들의 묶음이 된다. 이 때 우리는 ‘are’라고 하는 언어 형식을 단순히 직접 성분 분석하여서는 그 형식의 어떤 부분이 현재 시체를 나타내고, 또 어떤 부분이 인칭을 나타내며, 또 어떤 부분이 수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다. 형식 전체가 이와 같은 일련의 복합적인 특징들을 한꺼번에 가진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국어에 있어서는 혹 어떤 형식이 둘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며, 대체로는 한 가지의 기능 표시에 국한된다. 따라서 국어의 어떤 형식에 대하여 그 전체를 일련의 복합적인 특징의 묶음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된다. 가령, ‘아버님께서 어제 우리 집에 오셨었다.’와 같은 예에서 ‘오셨었다’와 같은 형식을 분석하지 않고 그 전체를 어떤 특징들의 묶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국어가 가지는 교착어적인 특징을 올바르게 파

악하지 못한 조처라는 것이다. ‘오-, -시-, -었-, -였-, -다’ 등에 각기 그에 해당하는 특이한 의미나 기능이 배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분리되지 않은 전체로 파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문법 연구에 있어 아직 ‘오셨었다’와 같은 형식의 연쇄를 분리되지 않은 전체로 파악한 일은 없다. 우리의 이러한 검토가 가지는 의미는 오히려 상징적인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형태론적인 작업의 세부에 있어서, 어떤 형식들의 연쇄를 하나의 분리되지 않은 전체로 파악하려는 경향에 대한 한 반성의 재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령, ‘오셨었다’ 전체를 하나의 분리되지 않은 전체로 파악하는 일이 용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셨었다’의 ‘-었었-’을 분리되지 않은 전체로 파악하는 일도 국어에 대한 교착어적인 인식법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인식법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법은 국어 문법 연구의 어떤 패턴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몇 가지 예만을 보이기로 한다.

가령, 국어 문법에서는 ‘-어라, -어도, -어서’와 같은 형식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어미로 다루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형식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어’와 ‘라, 도, 서’는 분리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어’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고, ‘-어야, -어요, -어야만’이라는 형식도 있고, ‘-고도, -고서, -고야, -고요, -고야만’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이 실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편견 없이 형태소 분석에 임한다면, 이들의 각 형식들이 각각의 독자적인 형태소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崔鉉培(1930)적인 종합적인 견해에 깊이 경도되어 있는 국어의 형태소 분석은 ‘-어라, -어도, -어서’의 형식은 분리하지 않고, ‘-어요, -고요’ 등은 분리하는 이상야릇한 편법을 취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에 반대하는 견해는 ‘-어라, -어도, -어서’ 등의 ‘-어’와 나머지 형식을 분석하여 무얼 하겠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또,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의 기능이나 의미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인

데, ‘-어’에 독자적인 형태소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느냐 하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무엇에 쓰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형태소의 의미가 정확히 구명되지 못한다고,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법가가 그 형태소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여 형태소 분석을 거기서 그만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어’의 기능이나 의미도 그렇게 선명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어라’와 같은 형식을 분석하여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만약 ‘-어라’의 ‘-어’가 어미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라’는 결코 ‘-어’와 같은 종류의 어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장에 있어서 어미는 하나만으로 충족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먹으라’의 ‘-라’도 동일한 ‘-라’인가 하는 문제를 덮어 둔다면, 가장 소박한 의미에 있어 ‘-어라’의 ‘라’는 어미일 수 없다. 출현 위치가 ‘-어도, -어서, -어야, -어요’ 등의 ‘도, 서, 야, 요’가 나타나는 위치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타이 어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添辭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정당성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법의 성립 자체만으로도 필자는 분명 위와 같은 형태소 분석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어라’ 명령과, ‘라’를 가지지 않는 ‘-어’ 명령의 의미는 ‘-어라’가 단체에 대한 구령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기능 의미적인 차이가 ‘-어라’는 ‘-어’에 ‘라’가 결합된 형식이며, ‘-어’는 그렇지 못하다는 구성상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필자는 이러한 설명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형태소 분석이 전혀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시 국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게 된다. 하나는 국어에 있어 문장을 종결시킬 수 있는 어미가 어떤 일정한 분류의 어미들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문장이 전형적인 종결 어미로 끝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어미 연결의 폐쇄적인 체계

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자의 특징으로는 흔히 종결 어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어, -지’가 적어도 그 기원적으로는 부사형 어미라고 하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나 밥 먹어.’라고 하는 문장은 문자 그대로 종결 어미 ‘-어’에 의하여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사형 어미 ‘-어’가 문장의 서법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억양에 의하여 문종결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예의 ‘-어’가 종결 어미라고 한다면, 그 앞에 ‘-느-’나 ‘-더-’가 쓰일 수 없는 이유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데, ‘-어’가 부사형 어미 ‘-어’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사형 어미 ‘-어’ 앞에는 원리적으로 ‘-느-’나 ‘-더-’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어’가 문자 그대로 종결 어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구 말구요, 그가 왔는데요.’ 등과 같은 예에서 이는 광범하게 확인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위의 ‘어라’의 ‘-어’를 일단 그러한 기능의 ‘-어’로 보려는 이유는 이것이다.

둘째, 국어에서 종결 어미로 끝난 문장이 어미 형식의 연결에 있어 폐쇄적인 체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한다오, 가라구, 했다며, 온단다(‘온다고 한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이다.), 가자스라, 가자구나, 갔다네, 하다지, 좋다나’ 등과 같은 형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의 ‘-다, -자, -라’ 등은 전형적인 종결 어미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이들 종결 어미가 어미 연결의 폐쇄적인 체계를 이루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형식의 성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라’의 ‘라’도 이러한 종류의 특이성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어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과연 ‘오셨었다’와 같은 예에서 어간과 어미는 어디에서 나뉘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의 견해는 ‘오셨었-’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라는 하는 최 현배(1937)적인 입장이고, 다른 하나의 견해는 ‘오-’가 어간이고 ‘-셨었다’가 어미라고 하는 허 응(1963, 1975)적인 입장이다. 전자에 있어 ‘-셨었-’은 ‘補助語幹’이며, 후자에 있어서 ‘-셨었-’

은 ‘안맺음 씨끝’이다. 알타이 어학에서는 일찍부터 ‘先語末語尾’라고 하는 명칭이 일반화되었는데, 그것이 이 두 입장의 어디에 속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先語末語尾’도 ‘語尾’라고 한다면, 허 응(1963, 1975)적인 견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며, ‘先-語末語尾’라고 인식한다면, 최 현배(1937)적인 견해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어떤 견해이든 용언의 부속 형식 결합체를 둘로 나눈다는 二分法的인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필자는 용언의 어간과 선어말 어미는 준합성어적인 구성을 이룬다고 생각하거나(이는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검토해 볼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것이 ‘오셨었다’를 ‘오-’라는 어간과 ‘-셨었다’와 같은 어미로 분석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보아서는 국어에 있어 활용의 범례가 정립될 수 없는 것이거나와 ‘왔다, 오셨다, 왔었었다, 오셨었다’와 같은 예에서는 용언의 중간 도막만이 변한다고 하는 기묘한 활용론에 입각해야 하며, ‘-다니, -다며, -다니까, -다며, -자스라’ 등과 같이 종결 어미 뒤에 다시 다른 형식이 쓰이는 것을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게 된다. 모든 것이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도 자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접근법에서부터 형태소 분석의 未分化的인 태도의 범람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를 가지는 ‘-는, -던’ 등이 계속해서 분석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것은 이러한 배경에 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는’과 ‘-던’은 바로 이 두 형식만의 비교에 의해서도 ‘-느-’와 ‘-은-’ 혹은 ‘-더-’와 ‘-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형태론의 문제가 비단 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체언에 조사가 연결되는 문제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면이 부족하여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겨를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해 둘 수 있는 것은 ‘서울에서나처럼은 해라’와 같은 예에서 이들을 꼭용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에 속한다는 것이다. 조사적인 형식이 어떤 폐쇄적인 체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용언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여기서 우리는 활용의 문

제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어에 있어서의 선어말 형태를 어미로 보려는 것은 문법 연구나 형태론의 연구를 최 현배(1937) 이전으로 돌리려는 노력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3. 國語의 統辭的인 特徵

국어의 통사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주목되었다고 여겨진다. 첫째, 국어는 標題-末(head-final) 언어라고 하는 것, 둘째, 국어는 주어와 함께 주제가 일정한 문법적인 성분으로 정립된 언어라는 것, 셋째, 국어는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라는 것이다. 이밖에 국어의 어순이 자유롭다든지, 최근에는 국어가 非-形相的 言語라든지 하는 견해가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어가 標題-末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성에 있어 구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 구성의 맨 끝에 있음을 말한다. 문장에 있어 동사가 문장의 맨 끝에 오고, 수식 구성에 있어 피수식어가 반드시 수식어 뒤에 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이 국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한다. 국어를 단편적으로 動詞-末(verb-final) 언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표제-말 언어라고 하는 것이 보다 큰 일반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표제-말’ 언어라는 성격 구명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비단 통사적인 구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형태론적인 구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 많고 또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국어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체언과 조사와의 결합에 있어서도 조사가 그 표제이며,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에 있어서도 어근이 표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나와, 어근과 접미사와의 결합에 있어서도 역시 어근이 아니라 접미사가 표제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에 대하여 예외를 찾는 일이 그 성립의 예를 찾는 일보다도 어렵다는 것은 지배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국어가 표제-말 언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합성어의 경우는 더 말

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국어가 主語-浮刻形 言語임과 동시에 主題-浮刻形 言語라고 하는 것은 Li & Thompson (1976)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손 호민(1980)에서의 반론도 있는 것이지만, 국어가 주어와 함께 주제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것은 매우 온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어에는 가주어도 없고, 피동형이 일부에 편재해 있어 보편적인 성립을 보이지 않으며, 국어가 표제-말 언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어의 화자로서 ‘미도파가 양복이 값이 백원이 싸다’와 같은 예에서 ‘값이’가 주어라는 사실을 놓치는 화자는 없다는 사실이나, 가령 이동된 복수 표지 ‘들’이 과연 문장의 어떤 성분과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그것이 통사적인 주어와만 배타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상 일반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어’에 대해서라는 것은 주어의 존재가 국어에서 전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말해 준다. 국어에서 피동형이 덜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만약 어떠한 형태로든 피동문이라는 것이 그 능동문의 주어를 관련항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역시 국어에 있어 주어의 존재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국어에서 무엇이 ‘주제’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당하다. ‘은/는’만이 주제 표지가 된다는 견해가 있고 ‘은/는’ 성분 가운데서도 문장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은 것은 주제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고, 한 문장에 주제는 많아야 하나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주제를 그 가장 편협한 의미에서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은/는’ 성분만이 주제라고 한다면, 관형어를 제외한 문장의 모든 성분에 ‘은/는’이 연결될 때 그 성립성이 점점 나빠져 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형절 속에 ‘은/는’이 쓰이는 경우는 그것이 文頭의 성분에 대해서이건 文中의 성분에 대해서이건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기 어렵다든지, ‘은/는’이 연결되는 명사구는 어느 것이나 非限定的이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성격 일반에 있어서 모든 ‘은/는’ 성분이 공통적인 것이다. 또한 한 문장에는 반드시 많아야 주제는 하나뿐이라는 견해도 그렇게 온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주제의 기능이 화자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그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반드시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긴 글에서도 주제는 꼭 하나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다. 흔히 한 문장에 주제는 하나이지만, 인간의 정신 능력은 그와 같은 단순 논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단 어떤 대상을 전제하고 그보다 적은 대상을 다시 선택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며,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문장에 주제가 여러 개 나타난다고 하여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주제의 기능으론 범위한정의 측면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어에는 높임법, 즉 경어법이 발달해 있다는 논의는 이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청자를 높이거나, 문장에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어떤 대상을 존대하거나 화자가 스스로 겸양하는 정교한 체계가 그동안 어떤 윤곽은 드러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어법 논의는 이제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아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경어법 문제만큼 불투명한 영역도 드물다고 할 것이다. 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경어법 형태소를 정립하는 데서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어떠한 영역에서보다도 청자 대우법의 문제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형태소 분석의 종합적인 견해가 보편화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현대와 중세의 단절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가령, 중세의 ‘-습-’은 현대에는 죽었다거나 현대의 ‘-삽-’은 청자 높임에만 국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믿음이 형태소의 단절뿐만 아니라, 형태소 인식의 단절까지도 빚어 왔다는 것은 소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 동안 학계의 일각에서 심심치 않게 이야기되어 오는 국어의 유형적인 특징의 하나는 국어가 非-形相的 言語(non-configurational language)

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非-階層的인 言語라고도 부르는 일이 있는데, 국어는 動詞句의 交點을 가지지 않고 주어나 목적어가 계층적인 구조에서 문장 교점에 직접 관할되는 평면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Hale (1982) 등의 논의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비-형상적인 언어가 자유 어순을 가진다든가, 名詞句-移動을 가지지 않는다든가, 대명사 탈락이 흔하다든가, 주어어가 없다든가, 복합동사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다든가, 격체계가 복잡하다든가 하는 외에도 주제적인 역할(thematic-role)을 가지지 않는 비-주제적인 위치가 없다든가 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국어를 포함시킨 것이 정작 어느 누구인지는 밝혀 말하기 어렵다. 일본어도 그렇다고 하니까 국어도 그럴 것이 아니겠느냐는 일반적인 견해가 정확한 성격 구명도 없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언어가 비-형상적인 언어에 속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국어를 아무런 반성없이 이러한 유형으로 묶어 때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우선, 국어에 비-주제적인 위치가 없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어에서도 주제의 위치, 그리고 초점 구성에 있어서의 초점의 위치는 결코 일정한 주제 역할이 상징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앞서서도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들’ 이동과 관련되는 것은 거의 주어에 국한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대칭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타 ‘再歸詞’와 관련한 현상에 있어서도 주어-목적어의 비대칭성은 확인될 수 있는 일인데, 이러한 특징 모두를 깊이있게 관찰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국어를 비-형상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국어의 현실을 극히 왜곡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4. 結 論

이제까지 우리는 국어의 문법적인 특징을 형태론적인 특징과 통사적인

특징으로 나누어 그 대채적인 윤곽은 살펴본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가 형태론적인 교착성을 띠고 있는 언어라는 것, 국어는 標題-末 言語라는 것, 국어는 주어뿐만이 아니라 주제가 일정한 문법적인 성분으로 정립된 언어라는 것, 국어는 경어법이 발달한 언어라는 것 등에 대해서 매우 소략하나마 조금씩은 언급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국어를 어떤 편견과 함께 바라보는 일은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형태소 분석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국어가 교착어라는 그 성격상의 특이성이 온전히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어의 문법적인 특징이란 일반적으로 국어만이 가지고 다른 언어는 가지지 못한 어떤 특이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국어도 분명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을 다른 언어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며, 또한 국어는 그 유형을 같이하는 혹은 그 계통을 같이하는 언어와 유형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손 호민(1980), "Theme Prominence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2.
 최 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 조선어문연구, 연희전문 문과연구집 1.
 최 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 출판부.
 허 응(1963), 중세 국어 연구, 정음사.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Bloomfield, L. (1933), *Language*.
 Hale, K. (1982), "Preliminary Remarks on Configurationality," ms.
 Ivić, M. (1970), *Trends in Linguistics*, Mouton.
 Steintal, H. (1860), *Charakteristik der hauptsächlichsten Typen des Sprachbaues*, Berlin(cf. Ivić, M. (1970)).